

진정한 자기용서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으로서 자아회복의 구조적 관계분석*

김 수 경¹⁾

박 중 효²⁾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누군가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자아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가설적 연구모형이 경험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425명(여성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등 3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9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책임수용, 죄책감 그리고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수치심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성격과 가해 심각도를 통제한 후에도 진정한 자기용서가 자기수용과 도덕적 자아라는 자아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기용서의 교육적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진정한 자기용서, 자아회복, 책임수용, 죄책감, 보상행동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함.

1)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강사

2)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mail : jonghyop@konkuk.ac.kr)

I. 서 론

사람들은 의도 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하게 된다. 잘못은 경미한 수준에서부터 심각한 피해까지 다양하다. 잘못된 행동(wrongdoing)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준다. 몇몇 사람들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며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괴로움을 호소한다. 가끔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기도 한다(박종효, 김수경, 2017).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들은 심리적 고통과 함께 그 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Fisher & Exline, 2006; Lewis, 1971).

1. 진정한 자기용서와 선행 요인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함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경험하는 내적 고통과 자기 처벌적 동기를 낮추어 줄 수 있는 긍정적 대처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기용서(self-forgiveness)’이다(Hall & Fincham, 2005). 자기용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Kim과 Enright(2014)는 자기용서를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관계 변화에 대해 책임지려는 도덕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Wenzel, Woodyatt과 Hedrick(2012)은 자기용서를 잘못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자기비난과 자기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종효와 김수경(2017)이 자기용서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책임지고자 하는 일련의 심리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용서가 타인용서에 비하여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자기용서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보호해준다는 편견과 오해가 있어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용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을 수 있다(박종효, 김수경, 2017).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용서 연구를 개관해 보면,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노력과 잘못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자기용서, 일명 거짓 자기용서가 진정한 자기용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연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 간에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도 하다. 이에 Woodyatt와 Wenzel(2013)은 자기용서를 진정한 자기용서(genuine self-forgiveness)와 거짓 자기용서(pseudo self-forgiveness) 혹은 자기사면(self-exoneration)과 구별하고 있다.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신이 저지른 객관적인 잘못으로 인해 경험하는 자기비난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부정적으로 변화된 자신에 대한 관점 및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박종효와 김수경(2017)은 대학(원)생 641명을 대상으로 진정한 자기용서를 거짓 자기용서나 처벌적 자기용서와 구분하고, 진정한 자기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정서와 행동 특성은 무엇인지, 세 가지 유형의 자기용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거짓 자기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수치심을 많이 느끼지만 죄책감은 오히려 더 적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거짓 자기용서를 많이 할수록 피해 입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상행동도 더 적었다. 반면 진정한 자기용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은 없으며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을 확인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몇 가지 선행요인(Antecedents)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기용서를 돕는 인지적 요인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지각된 용서, 귀인, 반추 그리고 책임수용이 있다. 그 중에서도 거짓 자기용서와 진정한 자기용서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인지적 요인은 책임수용이다. 책임수용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그 심각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Dillon, 2001; Hall & Fincham, 2005; Holmgren, 1998, 2002; Snow, 1993).

진정한 자기용서를 가능하도록 돕는 정서적

요인으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후에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 정서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구분된다. 구분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과 관련하여 후회와 반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며(Zechmeister & Romero, 2002; Strelan, 2007) 수치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보다 자기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Lewis, 1971;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

자기용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수치심은 잘못을 한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의도를 갖게 할 수 있어서 자기용서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Hall & Fincham, 2005). 반면에 죄책감은 후회나 회한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회복을 돕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켜줄 수 있다(Tangney & Dearing, 2002). McConnell(2015)도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자기 존재를 분리할 수 있게 하여 자기용서를 돕는 정서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적 요인으로는 보상행동이 있다. 보상행동은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피해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행동, 예를 들어 사과하기, 용서구하기, 물질적으로 배상하기, 재발방지 약속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Fisher & Exline, 2006; Hall & Fincham, 2005; Holmgren, 1998). 선행 연구(Fisher & Exline, 2006; Hall & Fincham, 2008)를

분석해보면, 보상행동은 가해자의 자기용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용서와 관련하여 성격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Strelan, 2007), 여전히 자기용서와 관련하여 성격적 특성은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Maltby, Macaskill, & Day, 2001),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용서를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Maltby et al., 2001; Thompson et al., 2005) 외향적인 사람은 용서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Walker & Gorsuch, 2002). 특히 성격특성으로서 자기에 성향은 자기용서와 모종의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잘못을 외면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기-편향적인(self-serving bias)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Strelan, 2007; Witvliet, Hinman, Brandt, & Exline, 2011; Zechmeister & Romero, 2002). 따라서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안녕(well-being)보다는 자신의 안녕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Strelan, 2007). 이러한 이유로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더 쉽게 자기 자신을 용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성향을 통제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에 성향과 함께, 가해 심각성도 자기용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정도가 심할수록, 가해자는 후회와 자기 비난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기용서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Griffin et al., 2016; Witvliet et al., 2011), 반면에 가해심

각도와 자기용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Exline, Root, Yadavalli, Martin, & Fisher, 2011). 이와 같이 가해심각도와 자기용서와의 관련성 사이에는 모종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해심각도를 자기에 성향과 함께 통제변인으로 고려하고자 하며, 이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진정한 자기용서의 영향과 효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진정한 자기용서와 결과 요인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재 그 자체로서 수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행동을 통해 손상된 도덕적 자아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Dillon, 2001; Fisher & Exline, 2006; Holmgren, 1998). Ryff(1989)는 자기수용이 자기실현, 최적의 기능, 성숙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핵심특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기수용은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용서와 자기수용에 관한 관련성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Bauer 등(1992)에 의하면, 자기용서는 자신과 타인이 다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 있었다. 유사하게 McGaffin, Lyons과 Deane(2013)은 알코올, 약물과 도박문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치료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수용과 자기용서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비록 소수의 연구이지만 상술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해 보면,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관점을 갖도록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자기수용의 과정에 이르도록 도와 줄 수 있다(Martin, 2008).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인 관계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을 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잘못은 도덕적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개인의 도덕적 자아를 손상시키는 일이기도 하다(Dillon, 2001; Holmgren, 1998; Woodyatt, Wenzel, & Ferber, 2017).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위배되거나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평소에도 도덕적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신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과 진정한 자기용서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도덕 철학자인 Dillion(2001)과 Holmgren(1998)는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진정한 자기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진정한 자기용서는 상처 입은 개인의 도덕적 자아를 회복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의지와 능동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복원시키고자 노력은 잘못이 발생하기 이전의 가해자의 괜찮았던 도덕적 자아로 회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Wenzel et al., 2012).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자기용서는 잘못된 도덕적 판단과 그로 인해 손상된 도덕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로써 진정한 자기용서는 개인이 가진 도덕적 자아를 잘못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자기용서 연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수치심, 죄책감)가 어느 정도로 완화되었는지, 또는 개인의 안녕감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다(심혜선, 김지현, 2013; Fisher & Exline, 2010; Hall & Fincham, 2005, 2008; McConnell, Dixon, & Finch, 2012). 특히 자기용서를 거짓 자기용서와 진정한 자기용서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다보니,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더 나아가 자기용서와 정적 또는 부정적 관련이 있는 요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짓 자기용서와 구별되는 진정한 자기용서에 초점을 두어,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인들이 자기용서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연구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보상행동 간에는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치심이 높을수록,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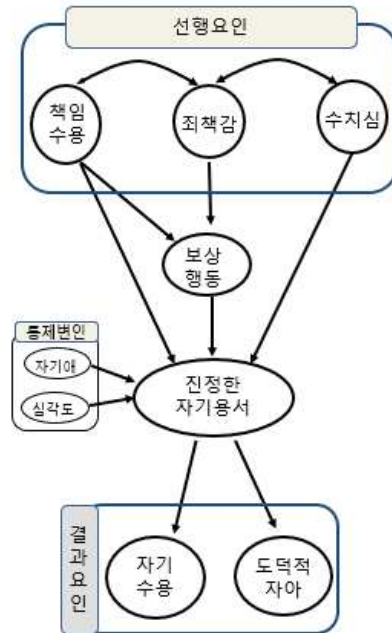


그림 1. 진정한 자기용서의 가설적 연구모형

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이나 배상과 같은 도움을 행동을 더 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박종효, 김수경, 2017; Hall & Ficham, 2005; Ranganathan & Todorov, 2010).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영향을 주는 선형요인과 진정한 자기용서가 자아회복이라는 결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모형화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요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둘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기수용이나 도덕적 자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요인과 자기수용 및 도덕적 자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원)생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배포된 430부의 설문지 중 425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응답지중 불성실한 응답(한 문항

에만 연속적으로 표기, 여러 장의 설문지를 무응답 표기 등)을 하였거나 자신의 잘못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질문하는 가해 심각도 문항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전혀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자료 7부와 다변량자료의 이상치 검증에서 이상치를 보인 자료 25부를 제외한 최종 39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2.24세($SD=5.14$)였으며, 이들 중 여자는 246명(62.6%), 남자는 147명(37.4%)이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388명(98.7%)이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5명(1.3%)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은 74명(18.8%), 교육계열은 91명(23.2%), 자연공학계열은 121명(30.8%), 상경계열은 59명(15.0%), 예체능계열은 46명(11.7%), 의약보건계열은 2명(0.5%)이었다. 교육정도는 4년제 대학교 재학은 336명(85.5%), 대학원 재학은 57명(14.5%)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본 조사 이전에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번안된 척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기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Woodyatt과 Wenzel(2013)의 자기용서 척도(Differentiated Process Scale of Self-Forgiveness:

DPSSF)를 박종효와 김수경(2017)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PSSF는 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정한 자기용서 7문항(예: 나는 나의 잘못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거짓 자기용서 7문항(예: 나는 그 일에 대해 비난 받아야 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벌적 자기용서 6문항(예: 나는 내가 한 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이 당연하다)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기용서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DPSSF문항 평가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0점)부터 ‘매우 동의함’(6점)까지 7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박종효와 김수경(2017)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이었다.

책임수용

본 연구에서는 책임수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Wenzel 등(2012)이 개발한 책임수용척도(Responsibility Accept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책임감을 잘못의 수용하고자 하는 도덕적 감각(moral sense)으로 이해하고,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망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평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7점)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총 8문항(예: 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으

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이 척도는 한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전공 연구자 2인이 원문항과 근접해지도록 수정을 거듭하여 번안하였다. Wenzel 등(201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5이었다.

죄책감과 수치심

본 연구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인느낌질문지(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PFQ-2)를 사용하였다. PFQ-2는 Harder와 Zelma(1990)이 개발하고 수정한 측정 도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심종온과 이영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FQ-2는 죄책감(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을 측정하는 6 문항과 수치심(예: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다)을 측정하는 10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평가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느낀다’(5점)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심종온과 이영호(2000) 연구에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3과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8과 .87이었다.

보상행동

본 연구에서 보상행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회복적 행동을 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llough 등(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이 개

발하고 McConnell(2009)이 수정·보완한 보상행동척도(Conciliatory Behaviors Scale: CBS)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종효와 김수경(2017)이 본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해당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5문항(예: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바로 잡거나 보상하려고 노력했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평가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7점)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박종효와 김수경(201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6이었다.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1989)가 개발하고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별로 7~8개의 문항씩 총 4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 중 ‘자기수용’ 하위 척도 8문항(예: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만을 사용하였다. 문항 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채점 시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이었다.

도덕적 자아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자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Aquino와 Reed(2002)가 개발한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중요성 측정 도구’(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Measure)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련의 도덕적 덕목들을 나열하고, 전반적으로 해당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해당 덕목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5개의 질문은 ‘내면화’(도덕적인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가?)와 관련된 질문이며 또 다른 5개의 질문은 ‘상징화’(타인에게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지도록 얼마나 드러내는가?)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평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이 척도는 한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진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전공 연구자 2인이 원문항과 근접해지도록 수정을 거듭하여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측정하는 상징화보다는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인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지에 관한 내면화 하위척도가 연구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면화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Aquino와 Reed(2002)의 연구에서의 내면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4이었다.

자기에 성향

본 연구에서는 자기용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자기에 성향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에 성향은 황순택(1995)가 개발한 자기에성격장애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순택(1995) 척도 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된 한수정(1999)의 7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수정(1999)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7이었다.

가해심각도

본 연구에서는 가해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문항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가’를 질문하였다. 문항평정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1점)’에서부터 ‘아주 많이 상처받았다(5점)’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가해심각도는 자료 선별과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 선별을 위해서는 해당 문항에 대해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측정도구

구분	척도	변인	문항예시	문항수	Cronbach α
자기용서	자기용서	진정한 자기용서	나는 나의 잘못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 중이다	7	.73
인지적 요인	책임수용	책임수용	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	.85
정서적 요인	개인느낌 질문지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6	.87
		수치심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다	10	.88
행동적 요인	보상행동	보상행동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바로 잡거나 보상하려고 노력했다	5	.86
자기 회복	심리적 안녕감	자기수용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8	.85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중요성	내면화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가?	5	.74
통제 변인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8	.87
	가해 심각도	가해 심각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나요?	1	-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 집단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설문 응답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응답 대상자들의 정서(죄책감), 인지(책임수용), 행동(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와 자기회복(자기수용, 도덕적 자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학적 배경 정보인 성별과 종교유형 그리고 전공에 따라 진정한 자기용서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0 그리고 여자는 1로 변환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이

상치, 결측치를 점검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분석을 기초로 한 통계 분석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 앞서 연구의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구조분석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책감과 수치심, 책임수용,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와 자기회복(자기수용, 도덕적 자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6개 이상이 되는 진정한 자기용서, 죄책감, 수치심, 자기수용과 자기에 변인을 3개의 문항 묶음으로 만들어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문항 묶음은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일 경우에도 모수추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적합도 지수의 향상에 기여한다(서영석, 2010; 조현철, 강석후, 2007).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 χ^2/df 비교적합도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모수불일치성지수인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였다. χ^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χ^2/df 값이 3보다 작을 때 적합한 모형으로 고려될 수 있다(Kline, 2015). 그러나 χ^2 값은 표본 수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제한점을 가지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들 중 TLI와 CFI는 상대적 지수이고 RMSEA는 절대적 지수인데, NFI, TLI, CFI 값은 .90이상일 때 적

합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고, .08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인 것으로 평가한다(우종필, 2015; Hu & Bentler, 1999).

책임수용, 죄책감과 수치심,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와 자기회복(자기수용, 도덕적 자아)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원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5000개의 표본이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각 매개효과 추정 경로 값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진정한 자기용서에 대한 기초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상처를 주었는지 등을 함께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진정한 자기용서 특성에 관하여 최종 393명의 자료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부모(41.7%), 동성친구(24.2%), 이성 친구(15.8%), 형제/자매(10.9%), 동료(6.1%), 배우자(0.5%), 자녀(0.5%) 그리고 친척(0.3%) 순으로 나타났다. 상처유형으로는 정서적 상처(28.8%), 이해부족(20.4%), 과도한 분노(14.5%), 무심함(14.2%), 이기심

(10.2%), 협조부족(5.1%), 배신(2.8%), 사랑부족(2.0%) 그리고 심각한 요구(1.0%)가 있었고 그 밖에는 신체적 학대(0.8%)와 금전·물질적 피해(0.7%)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상관 및 집단차이 분석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 왜도와 첨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책임수용은 수치심($r=.35, p<.01$), 보상행동($r=.27, p<.01$), 진정한 자기용서($r=.45, p<.01$), 도덕적 자아($r=.17, p<.01$) 그리고 자기애($r=.10, p<.05$)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죄책감은 보상행동($r=.12, p<.01$), 진정한 자기용서($r=.20, p<.01$)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수치심은 자기애($r=.27,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자기수용($r=-.23, p<.01$)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r=.53, p<.01$), 자기수용($r=.16, p<.01$), 도덕적 자아($r=.18, p<.01$)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기수용($r=.17, p<.01$), 도덕적 자아($r=.22, p<.01$)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자기수용은 도덕적 자아($r=.12, p<.05$)와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West, Finch와 Curran(1995)는 왜도가 2이하이거나 첨도가 7이하이어야 정규성 가정이 만족된다고 하였는데,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왜도는 $-.62 \sim .27$ 그리고 첨도는 $-1.77 \sim .36$ 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이 정규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성별에 따른 진정한 자기용서 수준의 집단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056 \leq t \leq .311, p>.05$). 종교유형과 전공에 따른 집단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분석과 S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종교유형 중 천주교집단의 사례수가 1개여서 사후검정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분석결과 종교유형에 따른 진정한 자기용서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전공에 따른 진정한 자기용서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구조모형 분석결과

측정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변인의 관계를 탐색하기에 앞서 책임수용, 죄책감과 수치심,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 자기수용, 도덕적 자아 그리고 통제변인인 자기애와 가해심각도의 개념들에 관한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 518.932(df=342, p<.001)$, TLI = .955, CFI =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N=393

χ^2	df	χ^2/df	TLI	CFI	RMSEA	LO	HI
518.932***	342	1.517	.955	.962	.036	.030	.043

***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393

	측정변인	B	β	S.E.	C.R.
책임수용	책임수용1	1.000	.752	-	-
	책임수용2	1.119	.754	.085	13.184***
	책임수용3	1.453	.798	.107	13.541***
죄책감	죄책감1	1.000	.667	-	-
	죄책감2	1.677	.908	.129	12.978***
	죄책감3	1.442	.785	.110	13.137***
수치심	수치심1	1.000	.783	-	-
	수치심2	1.294	.947	.068	19.137***
	수치심3	1.201	.829	.067	18.004***
보상행동	보상행동1	.826	.751	.061	14.647***
	보상행동2	1.000	.762	-	-
	보상행동3	.966	.815	.060	15.914***
	보상행동4	.842	.720	.061	14.000***
	보상행동5	.821	.684	.075	13.456***
진정한 자기용서	진자기용서1	.769	.663	.075	10.273***
	진자기용서2	1.000	.627	-	-
	진자기용서3	1.155	.828	.102	11.358***
자기수용	자기수용1	1.000	.831	-	-
	자기수용2	.897	.775	.057	15.710***
	자기수용3	.833	.834	.051	16.416***
도덕적 자아	도덕적 자아1	.741	.645	.071	10.445***
	도덕적 자아2	.784	.572	.083	9.466***
	도덕적 자아3	.925	.736	.082	11.256***
	도덕적 자아4	1.000	.724	-	-
자기애	자기애1	1.108	.785	.074	14.986***
	자기애2	1.096	.822	.071	15.512***
	자기애3	1.000	.772	-	-
	자기애4	.801	.667	.063	12.704***
가해심각도	가해심각도1	3.267		.050	65.530***

* $p < .05$, *** $p < .001$

.962, RMSEA = .036이었고, 이는 양호한 적합도 지수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모형에 투입된 잠재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측정변인들의 회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잠재변인들의 회귀계수 C.R.(Critical Ratio)값이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내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β)은 .572~.947로 나타나 변수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변인 간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결과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 경험하는 인지적 요인인 책임수용과 정서적 요인인 죄책감이 행동변인인 보상행동을 거쳐 가는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가 자기수용과 도덕적 자아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559.583(df=364, p < .001)$, TLI = .953 CFI = .958, RMSEA = .039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정한 자기용서와 책임수용, 죄책감 및 보상행동 간의 관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수용과 죄책감이 보상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책임수용과 죄책감에서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직접 경로 역시 유의하였다. 그러나 수치심에서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69$, n.s). 즉,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수용과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보상행동을 더 하고 진정한 자기용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와 자기수용 및 도덕적 자아 간의 관계. 본 연구결과 진정한 자기용서에서 자기회복의 지표로 상정한 자기수용, 도덕적 자아로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잘못에 대한 책임수용, 죄책감 그리고 보상행동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수용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도덕적 자아가 훼손되는 경험을 하였으나 진정한 자기용서가 손상된 가해자의 도덕적 자아를 복구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분석결과는 각각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최종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수용에서 시작되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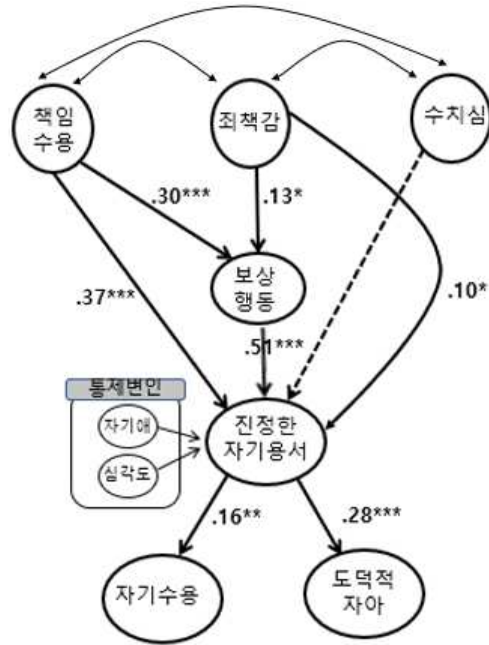


그림 2. 진정한 자기용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표 4.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

N=393

변수간 경로					간접효과	총효과	CI
책임 수용	→	보상행동	→	자기용서 ⁺	.152***	.518***	[.077, .230]
		보상행동	→	자기용서 → 자기수용	.083*	.083*	[.005, .154]
		보상행동	→	자기용서 → 도덕적 자아	.146***	.146***	[.070, .230]
죄책감	→	보상행동	→	자기용서	.065*	.166**	[.006, .120]
		보상행동	→	자기용서 → 자기수용	.027*	.027*	[.001, .062]
		보상행동	→	자기용서 → 도덕적 자아	.047**	.047**	[.012, .084]
수치심	→	자기용서	→	자기수용	-.013	-.013	[-.039, .005]
		자기용서	→	도덕적 자아	-.022	-.022	[-.059, .010]
보상 행동	→	자기용서	→	자기수용	.082*	.082*	[.005, .158]
		자기용서	→	도덕적 자아	.143***	.143***	[.070, .221]

+ 자기용서는 진정한 자기용서임.

* $p < .05$, ** $p < .01$, *** $p < .001$

퍼보면, 책임수용 → 보상행동 → 진정한 자기용서의 경로에서 보상행동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고, 직접경로도 유의하였기에 보상행동의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책임수용 → 보상행동 → 진정한 자기용서 → 자기수용 그리고 도덕적 자아의 경로에서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를 차례로 경유하는 다중 매개효과도 모두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죄책감 → 보상행동 → 진정한 자기용서에서 보상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했고, 죄책감과 보상행동 간의 직접 경로도 유의하여 죄책감의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죄책감 → 보상행동 → 진정한 자기용서 → 자기수용과 도덕적 자아의 경로에서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를 차례로 경유하는 다중 매개효과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수치심 → 진정한 자기용서 → 자기수용과 도덕적 자아의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상행동에서 시작되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보상행동 → 진정한 자기용서 → 자기수용과 도덕적 자아의 경로에서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수치심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치심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잘못에 대한 책임수용과 죄책감은 보상행동을 더 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도록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를 한 사람은 자기를 더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도덕적 자아 수준도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기존 자기용서 연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완화 및 개인의 안녕감 증진 효과를 검증하는 데 집중되어왔다(심혜선, 김지현, 2013; Fisher & Exline, 2010; Hall & Fincham, 2005, 2008; McConnell et al., 2012). 반면에 국내외적으로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예측요인들을 탐색하고 이 요인들이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과정을 가설화한 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은 책임수용(인지적 요인), 죄책감(정서적 요인) 그리고 보상행동(행동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들과 진정한 자기용서의 관련성을 가설적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기용서가 자아회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진정한 자기용서가 자기수용과 도덕적 자아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정한 자기용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요인들을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차원에서 가설화하고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에 의하면, 책임수용, 죄책감과 보상행동이 진정한 자기용서에 도달하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책임수용은 직접적으로 진정한 자기용서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며 보상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책임감을 자기용서의 구성요인으로 상정하고 분석한 김병직, 이동귀, 김지근, 김윤상과 황정은(2013)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 결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수록 보상행동을 더 많이 하고 죄책감이 직접적으로도 자기용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박종효, 김수경, 2017; Hall & Fincham, 2005; McConnell, 2015; Ranganathan & Todorov, 2010). 반면 수치심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수치심과 자기용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심은 자기용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Hall & Fincham, 2005)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상반되어왔다(McConnell, 2015). 국내에서는 박종효와 김수경(2017)이 수치심은 진정한 자기용서보다 거짓 자기용서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관된다. 연구모형에서 죄책감을 수치심을 동시에 포함하였기에, 진정한 자기용서와의 관련성에서 부분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복되는 관련성을 추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제외한 세 가지 선행요인이 진정한 자기용서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기용서에 도달하는 경로 또한 유의하였다. 직접경로와 보상행동을 매개한 간접경로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책임수용이나 죄책감이 진정한 자기용서로 가는 경로가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상행동을 거치지 않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충분히 진정한 자기용서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기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에 도달한 사람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노력을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Ryff, 1989). 물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직면해야 하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성장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자기용서는 도덕적 자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도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도덕적 자아를 손상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손상된 도덕적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잘못에 책임지려는 능동적인 행동은 잘못 이전의 ‘괜찮았던 도덕적 자아’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Wenzel et al., 2012). 본 연구결과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용서 과정을 거치면 상처 입은 개인의 도덕적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 Dillion(2001)과 Holmgren(1998)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기용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2009년부터 일부 연구자들만이 자기용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김병직 외, 2013; 배소현, 2009; 심혜선, 김지현, 2013). 국내·외적으로 자기용서 연구가 타인용서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용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는 관계없이 쉽게 스스로 자기 잘못을 사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자기용서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자기용서의 개념과 정의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피해자 회복에 대한 노력과 책임감이 결여된 거짓 자기용서를 자기용서로 이해된 상태로 연구되어온 관행과도 관련 있다(Woodyatt & Wenzel, 2013).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단순히 잘못된 사람의 부정적 정서 감소와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자기용서가 아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죄책감을 경험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행동을 하려는 선행요인을 거친 후 나타나는 진정한 자기용서 경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그동안 일반인에게 널리 퍼져 있던 자기용서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자기용서에 관한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기용서에 관한 후속연구가 더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잘못을 한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문제해결방식인 진정한 자기용서가 가해자를 심리내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자기용

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지만 타인용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용서가 심리적 안녕감, 신체적 건강, 긍정적 상호관계와 관련 있다고 보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감정적 규제, 대인관계, 학업 성취,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Enright, Knutson, Holter, Baskin, & Knutson, 2007; Gambaro, Enright, Baskin, & Klatt, 2008). 또한 학대받은 청소년 역시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나 정신건강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이선숙, 박종효, 2017). 이는 용서교육이 상처나 피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심리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용서 프로그램에서도 본 연구결과에 확인된 주요한 변인인 책임수용, 죄책감 그리고 보상행동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요소들을 교육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실제적 이야기를 구성하고 교육자는 토론과 활동을 통해 자기용서에 대한 가치, 자기용서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에 관한 정교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과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며, 자신과 피해자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진정한 자기용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인기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인격발달을 촉진시키고 상담과 교육 장면에 활용할 수 교육적 지도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들이 존재하며 이는 후속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수집한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모형으로 도식화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양적 연구이다. 이 결과는 상당 부분 관련성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전반에 걸쳐서 기술된 영향요인, 선행요인, 결과요인이라는 용어나 표현이 엄격한 과학적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나 실험설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진정한 자기용서의 모형이 인과적으로도 타당한지를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단적 관점에서 이러한 선행요인이 실제로 진정한 자기용서를 이끄는지,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적 흐름을 통해 자아회복이 관찰되는지를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Hall & Fincham, 2008; McConnell, 2015; Woodyatt & Wenzel, 2013).

둘째, 이 연구는 잘못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서 떠올려보는 자기 회고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기 회고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변인을 측정하고 있는바 떠올린 기억이 주관적이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건직후 보다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Witvliet, Ludwig, & Bauer, 2002)이나 실험 연구(Bast & Barnes-Holmes, 2015; Carlisle et al., 2012; Exline et al., 2011) 혹은 가족 및 가해자의 지인(예. 친구)의 보고를 활용

함으로써 자기보고 연구나 통계적 모형검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과 대학원생 집단만을 가지고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령과 자기용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Toussaint, Williams, Musick, & Everson, 2001)에 의하면 자기용서 수준에 있어서 연령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용서 수준에서의 연령 차이는 없을 수 있더라도, 일반 성인집단의 자기용서 대상이나 사건, 가해 심각도에 있어서는 대학생 집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아닌 성인 및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진정한 자기용서에 도달하는 과정과 진정한 자기용서가 자아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여 진정한 자기용서 모형을 더 정교화 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자기용서 선행연구에 관한 검토와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거짓 자기용서가 아닌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예측요인들을 찾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경로 모형으로 구성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또한 진정한 자기용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기수용이나 손상된 도덕적 자아문제를 돕는 중요한 심리기제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 다만 잘못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모종의 방식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건전하고 성숙한 문제해결이야말로, 가해자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책임수용, 죄책감 그리고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를 도울 뿐 아니라 성숙한 성인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도덕적으로 더 건전한 자아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큼이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기용서는 어린 학생 뿐 아니라 성인도 살아가면서 꼭 학습하고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심리적 역량이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병직, 이동귀, 김지근, 김운상, 황정은 (2013). 자기용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 연구*, 14(2), 973-993.
- 박종효, 김수경 (2017). 진정한 자기용서에 대한 탐색: 거짓 자기용서와 처벌적 자기용서와의 차별성. *교육심리연구*, 31(4), 589-613.
- 배소현 (2009). 한국판 자기용서 상태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심종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심혜선, 김지현 (2013). 여성의 수치심, 자기용서와 자살생각-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4(1), 159.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묶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17(3), 133-153.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이선숙, 박종효 (2017). 특성화 고등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학교 참여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조절효과. *인간발달 연구*, 24(2), 59-86.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quino, K., & Reed, I. I. (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423-1440.

- Bast, D. F., & Barnes-Holmes, D. (2015). Developing the Implicit Relational Assessment Procedure (IRAP) as a measure of self-forgiveness related to failing and succeeding behaviors. *The Psychological Record*, 65(1), 189-201.
- Bauer, L., Duffy, J., Founain, E., Halling, S., Holzer, M., Jones E., et al. (1992). Exploring self-forgiven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19-45.
- Carlisle, R. D., Tsang, J. A., Ahmad, N. Y., Worthington Jr, E. L., Witvliet, C. V., & Wade, N. (2012). Do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Differential effects of apology and restitution on behavioral and self-report measures of forg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4), 294-305.
- Dillon, R. S. (2001). Self-forgiveness and self-respect. *Ethics*, 112(1), 53-83.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2), 107-126.
- Enright, R. D., Knutson Enright, J. A., Holter, A. C., Baskin, T. & Knutson, C. (2007) Waging peace through forgiveness in Belfast, Northern Ireland, II: Educational programs for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7(1), 63-78.
- Exline, J. J., Root, B. L., Yadavalli, S., Martin, A. M., & Fisher, M. L. (2011). Reparative behaviors and self-forgiveness: Effects of a laboratory-based exercise. *Self and Identity*, 10(1), 101-126.
- Fisher, M. L., & Exline, J. J. (2006). Self-forgiveness versus excusing: The roles of remorse, effort, an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Self and Identity*, 5(2), 127-146.
- Fisher, M. L., & Exline, J. J. (2010). Moving toward self-forgiveness: Removing barriers related to shame, guilt, and regre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8), 548-558.
- Gambaro, M. E., Enright, R. D., Baskin, T. W. & Klatt, J. (2008). Can School-based forgiveness counseling improve conduc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ademically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8(Fall), 16-27.
- Griffin, B. J., Moloney, J. M., Green, J. D., Worthington, Jr, E. L., Cork, B., Tangney, J. P., & Hook, J. N. (2016). Perpetrators' reactions to perceived interpersonal wrongdoing: The associations of guilt and shame with forgiving, punishing, and excusing oneself. *Self and Identity*, 15(6), 650-661.
- Hall, J. H., & Fincham, F. D. (2005). Self 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5), 621-637.
- Hall, J. H., & Fincham, F. D. (2008). The temporal course of self-forgive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2), 174-202.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729-745.

- Holmgren, M. R. (1998). Self-forgiveness and responsible in moral agency.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32(1), 75-91.
- Holmgren, M. R. (2002).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psychotherapy. In Sharon L., Jeffrie. G. M (Eds), *Before forgiving: Cautionary views of forgiveness in psychotherapy*. (pp. 112-13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im J. J., & Enright. R. D. (2014). A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Defense of Self-Forgivenes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2(3), 260-62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38.
- Martin, A. M. (2008). *Exploring forgiv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 forgiven by God and self-forgiveness for an interpersonal offen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Maltby, J., Macaskill, A., & Day, L. (2001). Failure to forgive self and oth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personality, social desirability and gener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5), 881-885.
- McConnell, J. M. (2009). *Confirming a model of self-forg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McConnell, J. M. (2015). A conceptual- theoretical- empirical framework for self-forgivenes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7(3), 143-164.
- McConnell, J. M., Dixon, D. N., & Finch, W. H. (2012). Perceived forgiveness from god and self-forgive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31(1), 31-39.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 Rachel, K.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cGaffin, B. J., Lyons, G. C. B., & Deane, F. P. (2013). Self-forgiveness, shame and guilt in recovery from drug and alcohol problems. *Substance Abuse*, 34(4), 396-404.
- Ranganadhan, A. R., & Todorov, N. (2010). Personality and self-forgiveness: The roles of shame, guilt, empathy and conciliatory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1), 1-2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now, N. E. (1993). Self-forgiveness.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27(1), 75-80.
- Strelan, P. (2007). Who forgives others, themselves, and situations? The roles of narcissism, guilt, self-esteem, and agreeabl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2), 259-269.

- Tangney, J. P. (1995).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8(8), 1132-1145.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Billings, L. S.,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2), 313-360.
- Toussaint, L. L., Williams, D. R., Musick, M. A., & Everson, S. A. (2001). Forgiveness and health: Age differences in a US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4), 249-257.
- Walker, D. F., & Gorsuch, R. L. (2002). Forgiveness within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27-1137.
- Wenzel, M., Woodyatt, L., & Hedrick, K. (2012). No genuine self-forgiveness without accepting responsibility: Value reaffirmation as a key to maintaining positive self-regar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5), 617-62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In Hoyle, R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London: SAGE publications.
- Witvliet, C. V. O., Hinman, N. G., Brandt, T., & Exline, J. J. (2011). Responding to our own transgressions: An experimental writing study of repentance, offense rumination, self-justification, and distraction. *Journal of Psychology & Christianity*, 30(3), 223-238.
- Witvliet, C. V. O., Ludwig, T. E., & Bauer, D. J. (2002). Please forgive me: Transgressors' emotions and physiology during imagery of seeking forgiveness and victim response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1, 219-233.
- Woodyatt, L., & Wenzel, M. (2013). Self-forgiveness and restoration of an offender following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2), 225-259.
- Woodyatt, L., Wenzel, M., & Ferber, M. (2017). Two pathways to self forgiveness: A hedonic path via self compassion and a eudaimonic path via the reaffirmation of violated valu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6(3), 515-536.
- Zechmeister, J. S., & Romero, C. (2002). Victim and offender accounts of interpersonal conflict: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forgiveness and un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675-686.
- 1 차원고접수 : 2019. 01. 10.
수정원고접수 : 2019. 02. 26.
최종게재결정 : 2019. 03. 19.

An Explor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and the Outcome of Genuine Self-forgiveness

Kim, Sookyoung

Park, Jonghyo

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validate a hypothetical research model where a wrongdoer can restore self by a means of self-forgiveness. The participants were 425 college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246 females) attending K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A series of statistical analyses (i.e. ANOV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of 393 respondents, except for cases where the transgression was not serious at all or had unfaithful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guilt, and conciliatory behavior affect genuine self-forgiveness and contribute positively to self-acceptance and moral self (moral identity) through genuine self-forgiveness, even after controlling for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transgression severity. Based on the results, we concluded that self-forgiveness for coping with wrongdoing and mistakes in a positive and healthy way contributes to the perpetrator's restorations of self. Furthermore,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was suggested.

Keywords: genuine self-forgiveness, self-restoration, responsibility acceptance, guilt, conciliatory behavior

부록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여자=1)	1										
2. 연령	-.02	1									
3. 진정한 자기용서	-.03	.07	1								
4. 책임수용	-.09	.13 [*]	.45 ^{**}	1							
5. 죄책감	.04	.10	.20 ^{**}	.08	1						
6. 수치심	-.05	.14 [*]	.09	.35 ^{**}	-.01	1					
7. 보상행동	.03	.06	.53 ^{**}	.27 ^{**}	.12 [*]	.01	1				
8. 자기 수용	-.01	-.14 ^{**}	.17 ^{**}	-.02	.05	-.23 ^{**}	.16 ^{**}	1			
9. 도덕적자아	-.07	.06	.22 ^{**}	.17 ^{**}	.03	.03	.18 ^{**}	.12 [*]	1		
10. 자기애(통제)	-.08	.06	.04	.10 [*]	-.06	.27 ^{**}	.02	.00	.09	1	
11. 가해심각도(통제)	-.04	.09	.09	.09	.00	.03	-.01	.01	.05	.03	1
평균	.62	22.27	4.54	4.49	3.32	2.84	5.11	3.52	3.76	3.31	3.27
표준편차	.49	5.30	.90	1.04	.90	.83	1.17	.73	.78	.96	.99
왜도	-.49	2.78	-.45	-.03	-.25	.06	-.62	-.53	-.38	.27	.27
첨도	-1.77	11.12	-.10	-.22	-.59	-.48	.36	.11	-.11	-.46	-.96

* $p < .05$, ** $p < .01$